

4 종합

15년만의 새로운 학위복...19일 졸업식 첫선 학사 자주색, 석사 남색 바탕으로 차별화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새 학위복 디자인이 공개됐다. 자주색(경희레드) 바탕에 짙은 남색이 더해져 무게감을 더했고 금색 휘장 자수를 앞면에 박은 디자인이다. 새 학위복은 오는 19일 열리는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부터 사용한다.

새 학위복에는 우리학교 상징이 적극 반영됐다. 주 색상은 우리학교를 상징하는 자주색(경희레드)이다. 손목에는 학교 영문 표기가, 가슴에는 학교 휘장이 자수로 새겨졌다. 본관 석조전 기둥을 학위복 주름으로 재해석했고 평화의 전당 첨두아치 형상을 넥라인에 반영했다.

지난해 1학기부터 시작된 학위복 개편 사업은 크게 네 단계를 거쳐 완성됐다. ▲학위복 역사, 우리학교의 UI, 시각적 정체성 분석 ▲디자인 개발 단계-2D 스케치와 디지털 작업 ▲학위복 품평회-검증 및 피드백 ▲생산 준비 순으로 진행됐다.

학위복 디자인을 맡은 감선주(이상학) 교수는 소재와 디테일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감 교수는 “학생이 원했던 고급스러운 느낌을 위해 벨벳 소재를 택했다”며 “불만이 가장 많던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구현해 학위복의 품격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화 묵련과 웃는 사자, UI에 담긴 다



15년 만에 새롭게 제작된 학위복 디자인. 좌측이 학사 졸업생, 우측이 석사 졸업생이 입게 될 학위복이다. (사진=커뮤니케이션센터 제공)

양한 상징을 연구해 시각적 디자인으로 녹여냈다.

또한 감 교수는 “학생 참여로 학위복을 직접 착용하는 구성원 시각에서 디자인을 바라볼 수 있었다”며 “학위복이 졸업생에게는 학교에서의 값진 시간과 학문적 성취를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매개체로, 재학생에게는 미래의 졸

업 순간을 기대하게 하는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새 학위복은 구성원 1,82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31%인 566명이 선택했다. 설문조사에는 ‘경희레드 색상을 더 강조해 학교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표현해 달라’, ‘넥라인 디자인을 세련

되게 바꿔 달라’, ‘소매 부분에 전체 레터링을 적용해 달라’ 등의 요구가 있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측은 이러한 요구가 적극 반영됐다고 밝혔다.

학·석사 학위복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도 개선됐다. 커뮤니케이션센터 최선희 팀장은 “특히 학·석사 학위복 색상 차별화, 후드 디자인 의견을 주요하게 수렴해 최종 디자인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석사 학위복은 짙은 남색 바탕으로 자주색을 포인트 컬러로 배치했다. 또한 학위복 양팔에 두 줄을 새겨 학사 학위복과 차별화했다. 석사 학위복 개편 역시 설문조사 및 일반대학원 총학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됐다.

새 학위복 제작을 위한 자금은 모금 행사로 마련돼 그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경희 Spirit & Pride 캠페인 추진위원회 사무국이 추진한 ‘경희로운 학위복이 탄생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총 7억 원을 목표로 시작했다. 커뮤니케이션센터에 따르면 아직 목표 금액이 모이지는 않았으나 추후 모금액이 모이게 되면 학위복 제작 및 유지 보수 등의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학위복과 더불어 학위증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국문으로만 발행됐지만 개편 후에는 국·영문 모두 발행된다. 또한, 우리학교 서체와 직인 대신 총장과 각 단과대학장의 서명이 들어간다.

동대문02 노선 변경

하시언 hse0622@khu.ac.kr

【서울】우리학교 후문을 지나는 동대문02 마을버스 노선이 오는 17일부터 일부 변경된다. 기존 노선에 ▲래미안라그란데 ▲이문동우체국 정류장이 추가된다.

기존 동대문02는 회기역-동안교 회-외대·경희대후문-삼성래미안-새마을금고 앞을 지나 외대앞역에서 회차하는 방식으로 운행했다. 여기서 새마을금고 앞 정류장이 ▲래미안라그란데 ▲이문동우체국으로 변경된다. 변경 이유는 래미안라그란데 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입주민 편의성 제고다. 래미안라그란데 아파트는 이문동, 즉 우리학교 후문 근처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다. 동대문구청 교통행정팀 최영진 주무관은 “래미안라그란데에 약 삼천여 세대가 들어온다”며 “일부 단지는 청량초등학교로 배정받게 돼 입주민 편의를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노선 변경은 동대문구청 측에서 추진했다. 최 주무관은 “서울시에 사전 협의를 받고 노선 조정 심의 위원회 등 주민과의 논의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선이 변경되며 소요 시간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복 거리 기존 기준 900m에서 1,200m로, 총 300m가 증가해 거리는 비슷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의 횡단보도를 지나는 만큼 소요 시간이 증가한다. 동대문02 마을버스 운영 회사 우리운송 이상보 전무이사는 “구체적인 소요시간은 운행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